



필경회 회원과 김태도 복지환경국장과의 면담모습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인쇄사를 폐쇄조치하겠다는 중구청에 항의하고 있는 인쇄인들

필동 20개 인쇄사에 일방적인 폐쇄명령... 인쇄인 vs 중구청 평행선 필경회 “6월 30일자 시정조치 유예하라” 중구청 “현재 진행하는 절차 유지할 것”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소음 진동관리법으로 인해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인쇄인들이 '사업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필동경제인협의회(회장 박장선)는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 청문회'와 관련해 중구청 본관 입구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서울 중구청(청장 최창식)은 지난 5월 30일자 통지를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와 제18조에 의해 인쇄사를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20개 인쇄사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절차에 의해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별관 4층 작은도서관에서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 청문회'를 추진했다.

이에 필동경제인협의회(회장 박장선)는 폐쇄명령을 받은 인쇄사 외에도 많은 인쇄인들의 청문회 참여가 예상돼 보다 넓은 장소를 요구했으나, 중구청측에서는 20여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을 마련해 양측의 충돌이 있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인쇄인은 100명 가까이 됐다.

중구청과 필경회 회원들의 대기속에 필경회 회원들은 최창식 중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중구청장의 부재로 박장선 회장 등 인쇄인 5명과 김태도 복지환경국장과의 면담만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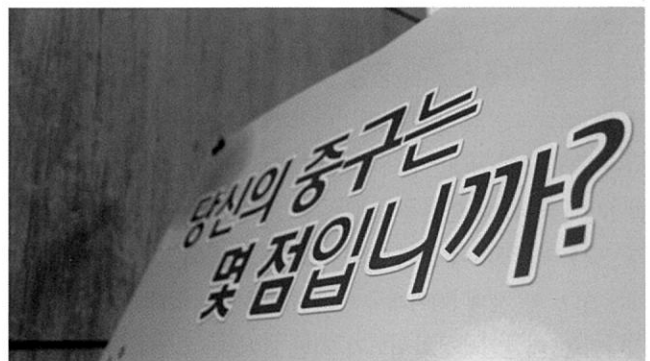
김태도 중구청 복지환경국 국장과의 면담에서 박장선 필경회 회장(투데이아트 대표)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소음이 50마력이 넘는 인쇄사를 소음배출 시설로 규정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입되는 5도 인쇄기는 모두 50마력이 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법이어서, 법 제처, 환경부, 중구청 등 정부 기관에서도 100마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동의를 한 상태다. 이를 소수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유보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명식 (주)해인기획 대표이사는 “힘없고 약한 소규모 인쇄사에게만

느닷없이 폐쇄조치를 내렸다. 인쇄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도와야지 회사를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관하기 위해 모인 인쇄인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는 전세계의 인쇄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에도 적법하기에 수입이 승인된 것이다. 외부에 배출되는 소음이 전혀 없는데도 시설의 동력을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관례에도 없는 일이다”라며 “문화산업 발전에 매진하는 인쇄인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외쳤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은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악성민원으로 인해 유보된 상태다.☞



중구청 1층에 설치돼 있는 입간판. 인쇄인에게 중구청은 몇 점입니까?